

지역 소식통

제1회 부안 곰소만 왕새우 축제 15일부터 개최

부안군에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최적의 생육환경에서 양식하고 있는 우수한 품질의 새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새우 판매가격은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2만6,000원/kg(25미 내외), 현장에서 셀프패키지를 이용 시에는 3만6,000원/kg(25미 내외)이다. 현장에서 방문객 대상 소비축진을 위해 할인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으로 판매 가격 보다 10~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방문자 모객과 새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시식용으로 새우 튀김, 새우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장은 주요 관광지인 곰소 염전과 청자박물관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방문객 유도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의 날' 행사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제16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조기검사와 예방,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일부터 3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의 날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극복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건강 걷기 앱 워크온과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챌린지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어 9월 18일부터 진행되는 치매극복 SNS 퀴즈 이벤트는 카카오톡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채널 소식에 실린 링크를 통해 치매 예방 퀴즈를 풀어 제출하면 이벤트 선정 조건에 맞는 선착순 50명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인돌유적 미디어아트 15일 개막

10월 14일까지 한달간 다양한 빛의 향연 대장정

2023 고창 고인돌유적 문화유적 미디어아트'가 오는 15일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을 배경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고창군과 문화재청,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고인돌 유적 미디어아트는 10월14일까지 약 22일간 진행된다. 9월은 월요일과 화요일, 10월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쉰다.

올해는 '고창 고인돌유적 별빛기행'을 주제로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3가지 테마로(△고인돌! 깨어나다 △되돌아가는 시간 △시간을 넘어) 별빛과 고인돌과 함께하는

밤빛 여행을 떠난다.

박물관과 유적지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실감 콘텐츠, 야간조명과 포토존, 유적지내 선사마을에서 펼쳐지는 작가공간과 프로젝트 맵핑, 유적지 3코스에서 펼쳐지는 대형 미디어파사드 등 11개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미디어아트의 메인 공간에는 고인돌과 자연을 스크린 삼아 3만 안시루멘(ANSI Lumen, 프로젝트에서 나온 빛을 1m 거리의 벽에 비췄을 때의 밝기)의 프로젝터 6개를 2개씩 겹쳐서 투사하는 최첨단 기술(스택투사)이 구현된다.

5200㎡ 스케일의 대형 미디어아트 영상을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창 고인돌만의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15일 개막식에서는 화려한 드론쇼, 약 70명의 팝페라 공연단과 합창단이 출연하는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 공연이 개최될 예정으로 더욱 풍성한 개막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인돌 유적 미디어아트는 작년 1회의 개최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최첨단 콘텐츠 보강 등이 이뤄졌다"며 "깊어가는 가을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에서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한마음대회 개최

정읍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공무원 등 400여명 참석해 화합

정읍시는 지난 8일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맞아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인 한마음대회를 전북과학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학수 시장과 김형우 부시장, 정읍시의회 의원,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전북과학대학교 총장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봉사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회복지인이 행복하면 시민의 행복함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단체장들의 덕담 릴레이가 이어졌으며, 사회복지발전

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미라도시락 출장위폐(대표 허혜은)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종식을 제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간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며 정읍시 복지발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정읍시도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4년 주요 시책 보고회 개최... 신규 시책 167건 발굴

정읍시, 내장호 에코리움 전망대 조성 · 내장산 전국캠핑대회 등 제시

정읍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4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형우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39개 부서장들이 참석해 국·소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굴한 167건의 신규 시책 사업과 87건의 공약사업을 검토했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하고 시장의 질의 응답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 계획,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제시된 주요 시책은 △내장호 에코리움 전망대 조성 △정읍 내장산 전국 캠핑대회 개최 △세계역명도시 자매도시 결연 추진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신규 일반산림단지 조성 △무인 정선간감정기 설치 △샘골 시민 정원 콘서트 △정읍 특산자원 활용 헬스푸드 융복합 상품화 사업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조정을 철저히 해주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길 바란다"며 "보고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으뜸 정읍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발굴된 시책사업에 대해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55개 시·군·구가 신청해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후 합산된 평가 점수에 의거 최종 33개 시군이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전국 상위 5개 시군에 포함됐으며 전북도내 1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축산업이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관내 29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방식개선, 축산악취저감, 경축순환 활성화분야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군에서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 냄새저감 컨설팅 등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악취저감 사업과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교육 추진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축산농가는 악취민원에 대한 시름을 줄이고 동시에 군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악취저감사업에 더불어 농장단위 자발적인 악취개선 노력으로 군민체감경쟁 갖춘 축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6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고창 고인돌박물관서 열려

고창군과 전북대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종)가 주최·주관하는 '제16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가 지난 8일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재 황윤석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출신으로 성리학, 천문역산학, 역사학, 지리학, 언어, 예술 음악 등 다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가 남긴 일기인 '이재난고'는 조선 후기 생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재난고를 통해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렸다. 한문종 소장의 '호남에서의 이재난고의 사료적 가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전북대 송만오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연구자들의 주제 발표와 전경복(오래된 연구소) 소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문종 전북대 이재연구소장은 "이재난고는 조선 후기 생활사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매우 귀한 자료로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조선 후기 역사 연구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노형수 부군수는 "황윤석은 전봉준, 신재효와 함께 고창의 삼대 인물이다"며 "그가 남긴 이재난고를 통해 올해 1월, 280년 만에 '호전세계'를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과 전북대 이재연구소는 이재 황윤석 선생의 일기인 이재난고의 문화재적 가치 확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16회를 맞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추석 맞이 임도시설 일제정비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주요 임도에 대해 잡초와 잡목 제거 등 임도 보수 일제 정비에 나섰다.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임도를 이용하는 성묘객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임도관리원을 활용해 주요 임도 42km에 대해 풀베기와 잡목 제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내 주요 임도 일제정비 실시 이후 쾌적한 산행과 등산로 단장으로 임업인들의 임산물 수확과 숲가

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임도면 풀베기와 노면 정비 추진을 통해 군민들과 고향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 전라북도 제1차 임도설계계획 확정에 따라 작업임도 신설 및 기존 임도 보수 사업 추진을 완료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총 24개 노선 47.3km의 임도를 조성 관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